

월간 TSG

202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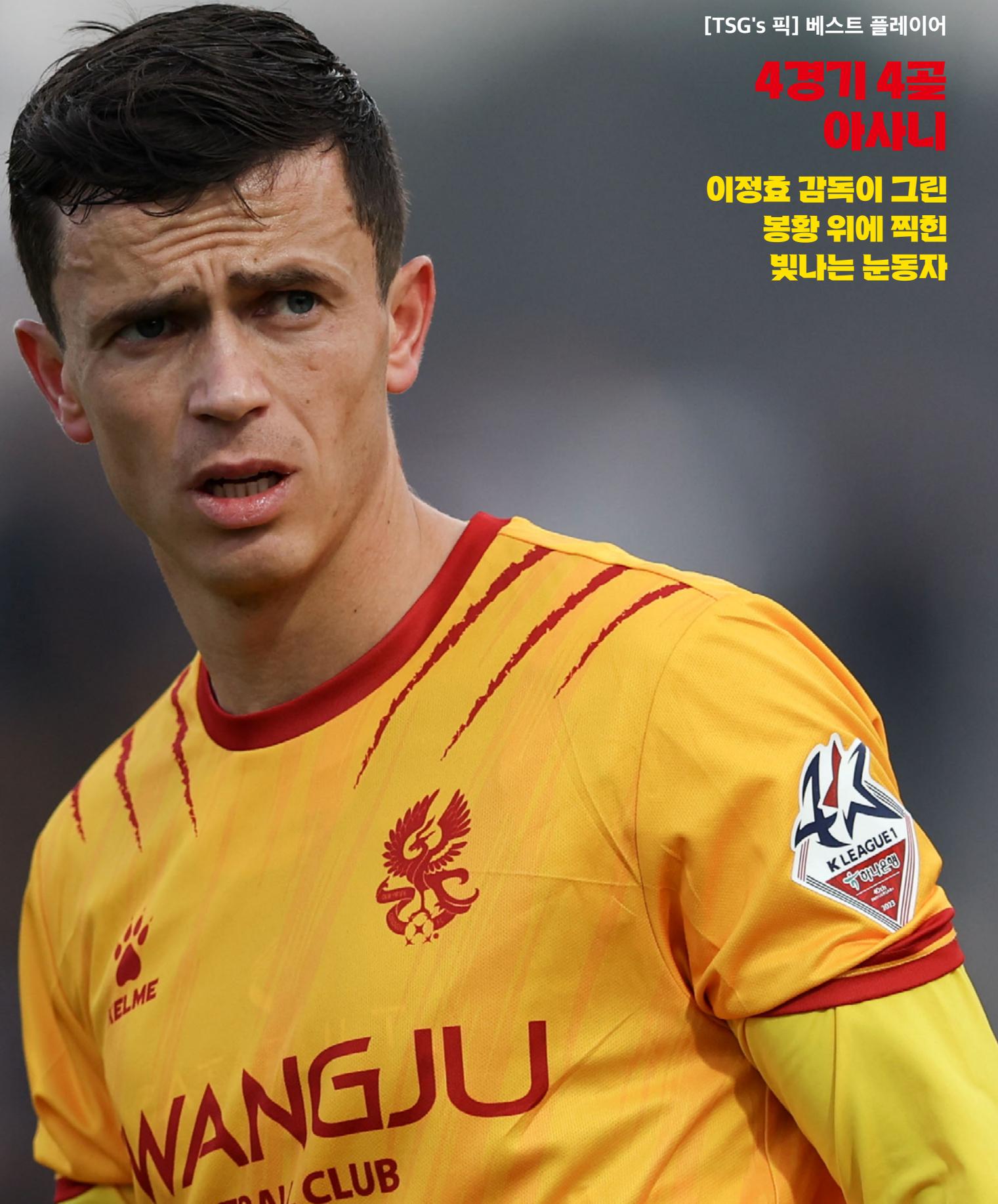


2022 K LEAGUE TECHNICAL REPORT
TSG MONTHLY MAGAZINE

[TSG's 픽] 베스트 플레이어

4경기 4골
아사니

이정호 감독이 그린
봉황 위에 찍힌
빛나는 눈동자



K리그 월간 데이터·순위 01

K리그 월간 오버뷰 04

[TSG's 픽] 베스트 팀 06



새 시즌에도
계속되는 왕의 행차,
디펜딩 챔피언 울산의
산뜻한 시작

[TSG's 픽] 베스트 플레이어 14



'4경기 4골, 아사니',
이정호 감독이 그린
봉황 위에 찍힌
빛나는 눈동자

[TSG's 픽] 베스트 매치 20



'6골 폭발',
인천과 대전은
어떤 지략 대결을
펼쳤나

TSG 기술위원 칼럼 26

이상과 현실 사이의 타협?
2023년 '익수볼'의 변화
<김남표 TSG기술위원>

TSG's TOPIC 30

K리그 신입생 수비 조직력 중간 점검
— 충북청주FC & 천안시티FC



2023 K LEAGUE TECHNICAL REPORT
TSG MONTHLY MAGAZINE

발행처 | (사)한국프로축구연맹
데이터 | BEPRO11
기획 | K리그 TSG
편집 및 디자인 | Graphic Ratio(www.studio-ratio.com)
사진 | FPhotos
발행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회궁길 46 축구회관 5층
발행일 | 2023년 4월 7일

· 이 책의 저작권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에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사진은 FPhotos가 제공한 것으로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사전 허가 없이 책 내용의 무단 전제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사용된 K리그 기록은 (사)한국프로축구연맹의 K리그 공식 기록과 BEPRO11의 K리그 부가 기록 기준에 따릅니다.

K리그 1 순위표

	경기 수	승점	승	무	패	득실
1 울산현대	4	12	4	0	0	6
2 FC서울	4	9	3	0	1	3
3 대전하나시티즌	4	8	2	2	0	4
4 포항스틸러스	4	8	2	2	0	2
5 광주FC	4	6	2	0	2	2
6 대구FC	4	5	1	2	1	1
7 인천유나이티드	4	4	1	1	2	-5
8 전북현대	4	4	1	1	2	-1
9 수원FC	4	4	1	1	2	-3
10 제주유나이티드	4	2	0	2	2	-2
11 강원FC	4	2	0	2	2	-3
12 수원삼성	4	1	0	1	3	-4

K리그 2 순위표

	경기 수	승점	승	무	패	득실
1 부천FC1995	4	9	3	0	1	4
2 경남FC	4	8	2	2	0	6
3 FC안양	4	8	2	2	0	2
4 부산아이파크	3	7	2	1	0	3
5 김포FC	3	7	2	1	0	6
6 김천상무	3	6	2	0	1	1
7 충북청주FC	4	5	1	2	1	-1
8 성남FC	4	4	1	1	2	-1
9 안산그리너스	4	4	1	1	2	-1
10 충남아산FC	4	4	1	1	2	-1
11 전남드래곤즈	4	3	1	0	3	-7
12 서울이랜드FC	3	1	0	1	2	-2
13 천안시티FC	4	0	0	0	4	-9

K리그 공격 데이터

순위	구단	득점	기대 득점	실득점 - 기대득점	슈팅	점유율
1	울산현대	8골	5.8xG	+2.2골	43회	54.5%
2	대전하나시티즌	8골	4.9xG	+3.1골	39회	49.9%
3	포항스틸러스	6골	5.4xG	+0.6골	48회	59.5%
4	광주FC	6골	4.5xG	+1.5골	49회	48.8%
5	FC서울	6골	3.4xG	+2.6골	40회	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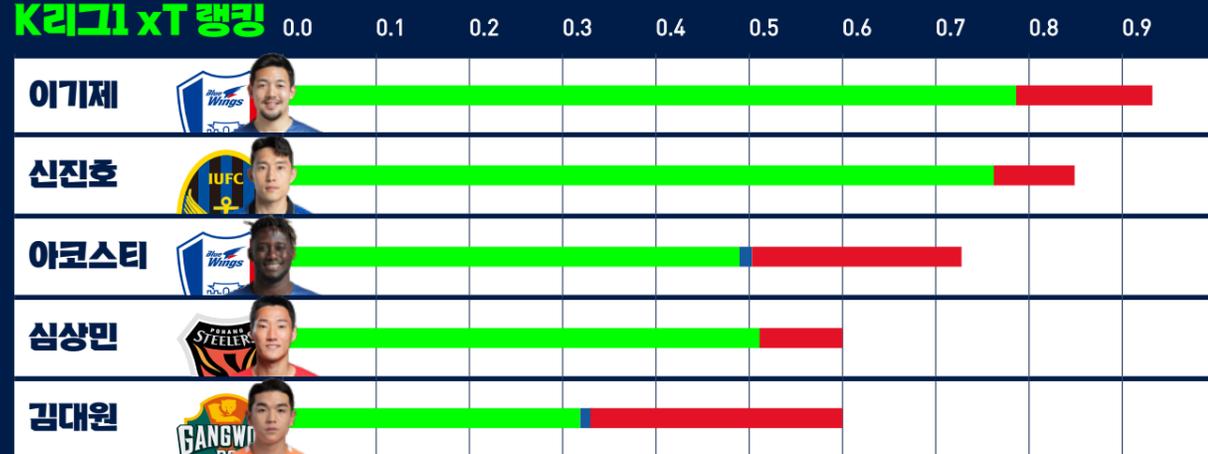
*PK득점 및 상대 자책골은 득점, xG값에서 제외

K리그 수비 데이터

순위	구단	실점	기대 실점	선방지수	슈팅 허용	PPDA
1	울산현대	2골	3.8xG	-0.05	10.7회	9.0
2	제주유나이티드	3골	5.2xG	+0.73	11.5회	6.8
3	대구FC	4골	4.2xG	-0.13	11.2회	14.2
4	FC서울	4골	4.9xG	-0.52	11.0회	10.6
5	포항스틸러스	4골	5.2xG	+1.30	7.3회	7.2

*PK득점 및 상대 자책골은 득점, xG값에서 제외

K리그 xT 랭킹



Event Type — Pass Dribble Carries

기대득점(xG) | 득점 슈팅 찬스가 득점으로 연결될 확률을 의미. xG값은 슈팅 위치 및 각도, 연결된 패스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됨

압박강도(PPDA) | 전방 압박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상대방 골라인으로부터 60% 지역 이내에서의 상대방 패스 시도 횟수 당 수비 시도 행위로 계산됨

기대 위험(xT) | 해당 선수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공격을 전개하였는가를 의미하는 지표. 팀의 공격 전개에 많은 관여를 할수록 수치 증가

K리그2 공격 데이터

순위	구단	득점	기대 득점	실득점 - 기대득점	슈팅	점유율
1	경남FC	8골	6.5xG	+1.5골	60회	52.6%
2	부산아이파크	7골	4.3xG	+2.7골	40회	48.5%
3	충북청주FC	6골	4.6xG	+1.4골	36회	42.5%
4	FC안양	5골	6.2xG	-1.2골	52회	45.6%
5	부천FC1995	5골	5.2xG	-0.2골	51회	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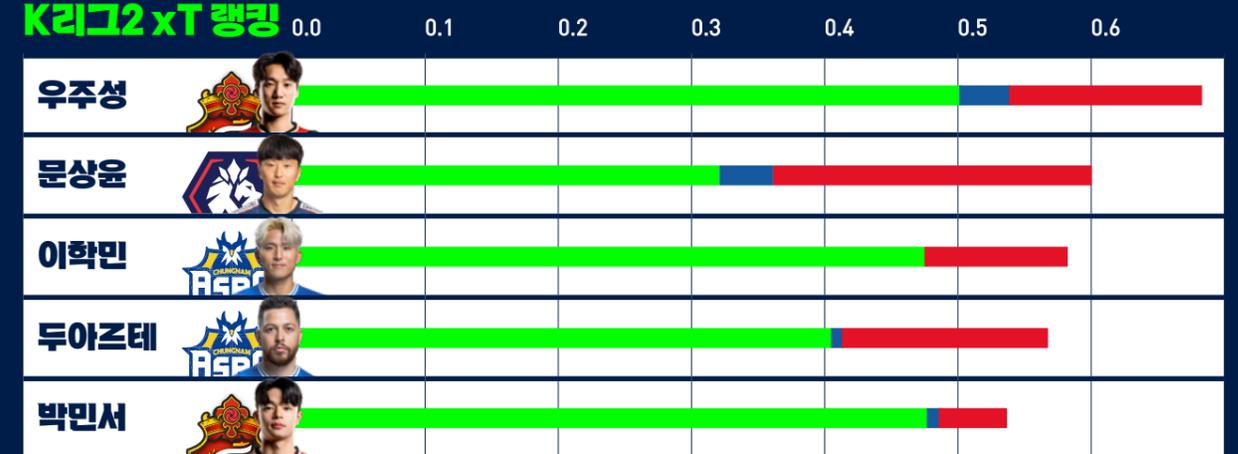
*PK득점 및 상대 자책골은 득점, xG값에서 제외

K리그2 수비 데이터

순위	구단	실점	기대 실점	선방지수	슈팅 허용	PPDA
1	김포FC	0골	2.0xG	+0.95	9.7회	6.9
2	부천FC1995	1골	5.0xG	+0.85	13.5회	8.5
3	경남FC	2골	2.8xG	-0.98	10.2회	5.3
4	FC안양	3골	3.3xG	-1.26	9.0회	6.9
5	충남아산FC	3골	4.0xG	+0.94	8.2회	8.0

*PK득점 및 상대 자책골은 득점, xG값에서 제외

K리그2 xT 랭킹



Event Type — Pass Dribble Carries

K LEAGUE OVERVIEW

40주년을 맞이한 K리그의 새 시즌이 막을 올렸다.

역대 최다 개막전 관중 수 10만 1,632명을 기록하며, 개막부터 K리그의 봄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K리그2에서는 천안과 충북청주가 새롭게 합류해 13팀 체제로 레이스를 시작한다.

리그 창설 이래 처음으로 K리그1 보다 많은 팀이 K리그2에 참가하는 시즌이 됐다.



새 시즌에도 이어지는 울산의 저력

17년 만에 챔피언 자리에 오른 울산이 새 시즌에도 저력을 과시했다. 시즌 첫 4경기에서 전승을 거두며 당당히 리그 1위 자리에 올랐다. 루빅손, 아타루, 주민규 등 신입생들의 활약도 좋다. 현재 K리그를 통틀어 유일한 전승 구단이다. 성적에 비해 경기력이 따라주지 못한다는 시선도 있었으나 4R 수원FC전에서 결과와 과정 모두를 잡는데 성공하며 의심의 목소리를 일축했다. 울산의 푸른파도는 올해도 매섭게 K리그에 몰아치고 있다.



‘승격팀’ 돌풍을 일으킨 대전

한편 ‘승격팀’ 대전은 무려 3위 자리에 올랐다. 4경기 2승 2무의 성적이며, 대전과 같은 K리그1 무패 팀은 울산과 포항 뿐이다. 이번 시즌 대전의 최대 강점은 득점력이다. 리그 4경기에서 8골을 몰아치며 ‘득점 1위 팀’으로 올랐다. 기대 득점(4.89xG)에 비해 실 득점 수(8골)가 매우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활약한 레안드로, 티아고, 이진현 등의 선수들이 K리그1에서도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최하위 수원 삼성, 봄날을 기다리며

K리그1 3월 순위표 가장 밑에는 수원삼성이 위치해 있다.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지만 여전히 수원에겐 강등권이 익숙하지 않은 자리다. 수원은 시즌 첫 4경기에서 승점 1점만을 따냈다. 일정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승격팀 광주와 대전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으나 패배하고 말았다. 수원FC전 역시 전력상 강팀과의 일전이었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번 시즌 수원에겐 아직 작년 겨울의 한기가 가시지 않은 듯 보인다.



K리그2에 불어온 익숙한 향기, 부천의 시즌 초 돌풍

K리그2에서는 부천이 1위를 달리고 있다. 4경기 3승 1패의 성적이다. 1R 경남전에서 패했으나 이후 3경기에서 내리 3연승을 거뒀다. 현재 K리그2에서 유일한 3승을 거둔 구단이다. 부천은 작년에도 시즌 초 1위 자리를 차지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6경기 4승 2무의 성적을 통해 3월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시즌 부천은 시즌 말까지 현 순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몇몇 주축 자원의 이탈에도 부천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박진섭 감독의 ‘명가재건’

부산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시즌 첫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했다. 이번 시즌 박진섭 감독의 지휘 아래 일정을 치를수록 경기력이 좋아지는 모습이다. 1R 천안전에서 3-2 진땀승을 거뒀으나, 이후 3R에서 국가대표급 전력을 보유한 김천을 잡아내며 3월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K리그2로 강등당한 2021시즌 이래 가장 좋은 시즌 초 페이스다. 이대로라면 박진섭 감독의 ‘명가재건’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



천안, 여실히 실감 중인 프로의 벽

천안은 이번 시즌 K리그의 유일한 전패 팀이다. 지난 4경기에서 단 하나의 승점도 따내지 못하며 K리그2 최하위에 위치했다. 실점도 상당하다. 김포전 4-0, 부천전 3-0 등의 대량실점 패배를 거둔 끝에 총 11실점을 기록했다. 수비 조직력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일관성이 부족한 모양새다. 전체 11실점 중 7골을 후반전에 허용했다. 천안에게는 수비조직력 개선이 올 시즌 K리그2에서 살아남기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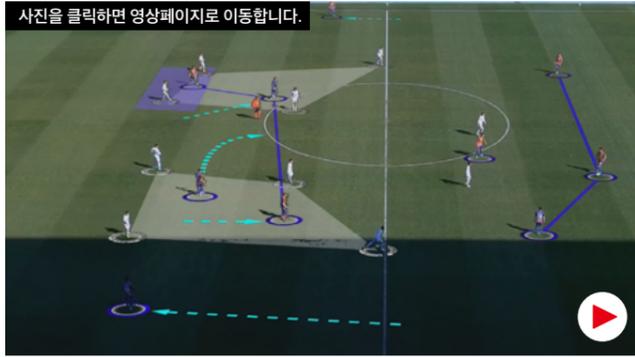
[TSG's 픽] 베스트 팀

새 시즌에도 계속되는 왕의 행차, 디펜딩 챔피언 울산의 산뜻한 시작

지난 시즌 17년 만에 왕좌에 오른 울산이 새 시즌에도
저력을 이어가고 있다. 무려 개막 이후 4전 전승의 성적이다.
현재 K리그 내에서 유일한 '전승 행진'에 오른 팀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전북, 서울과 같은 잠재적 우승 경쟁팀들도
모두 꺾이며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선점하는 데에 성공했다.
왕좌를 노리는 경쟁팀들의 기대와는 달리, 디펜딩 챔피언에게
방심은 없어 보인다.

공격 라인의 명확한 역할 분담, '이게 팀이야.'

울산은 빌드업시 4-2-3-1 대형을 기반으로 한다. 각 2명의
미드필더와 센터백 모두가 빌드업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양 윙백은 1선으로 높게 전진해 공격 라인에 위치
한다. 오른쪽의 김태환이 공간 침투에 집중하고, 왼쪽의 설
영우가 종종 밀선에서부터 볼을 받고 올라간다. 윙백이 전
진한다면 후방에서는 넓이를 확보하기 위해 백3와 같은 형
태로 전환한다. 2명의 미드필더 중 한 명이 2명의 센터백과
함께 최후방을 점유하는 형태다. 유사 '3-1'과 같은 대형을



이번 시즌 울산의 빌드업 형태. 양 윙어의 움직임에 따라 4-2-2-2와 같은 대형을 형성한다.



울산의 수원FC전 공격 형태

형성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울산은 좌우 센터백 선수들이 공간을 확보하고 공격의 시발점이 되는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한편, 4명으로 이뤄진 공격 라인에서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보인다. 울산은 이번 시즌 첫 3경기에서 양 윙어 자리에서 다른 성향의 선수를 배치하는 특징을 보였다. 왼쪽에는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바코를, 오른쪽에는 공간 침투에 능한 장시영/엄원상을 기용했다. 양 윙어에게 명확히 다른 역할을 부여하며 1선에서의 체계를 갖췄다. 울산은 빌드업시 양 윙어의 움직임에 따라 4-2-2-2와 같은 대형을 형성한다. 공간 침투에 능한 오른쪽 윙어 장시영/엄원상은 상대 수비 라인에 붙어 뒷공간을 공략할 채비를 한다. 이 경우 상대 윙백을 눌러 높게 전진한 김태환에게도 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 한편, 왼쪽 윙어 바코는 낮은 지역으로 내려와 상대 수비-미드필더 라인 사이 지역을 점유하고 볼을 받아내려 한다. 바코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축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울산의 공격형 미드필더는 주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는 편이다. 울산은 중원에 미드필더 한 명과 바코,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3명의 선수를 확보하여 숫자 싸움을 가져간다. 중앙 공격수인 주민규와 마틴 아담 역시 언제든지 중원으로 내려와 포스트 플레이를 전개할 수 있다. 상대 미드필더가 하프 스페이스로 끌려 나와 중앙 공간이 벌어졌다면, 둘은 주저 없이 내려와 팀의 연계 플레이에 가담했다. 주민규와 마틴 아담은 모두 우월한 피지컬을 통해 수준급 포스트 플레이를 전개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다. 울산은 이번 시즌 첫 3경기에서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해 공격을 전개해왔으나 3R 서울전에서 한계를 보이는 듯 했다. 서울은 3R 울산전에서 비대칭 4-4-2 수비 대형을 형성했다. 기본적으로는 4-4-2로 수비를 시작했으나, 하프 라인 부근으로 내려설 때면 왼쪽 윙어인 임상협을 내려 5-2-3과 같은 대형을 형성했다. 울산의 오른쪽 공격 진영을 막아내기 위한 맞춤 전술이었다. 임상협이 전진하는 김태환을 따라 수비 라인으로 내려왔으며, 임상협이 측면을 막으니 서울의 왼쪽 윙백 이태석이 장시영/엄원상의 깊은 위치에 대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비 형태에 고전하자 울산은 이후 수원FC전에서 공격 전술에 조금의 변화를 줬다. 루빅손을 왼쪽 측면에 배치하면서 양 윙어 선수들이 모두 상대 수비 라인에 깊숙이 위치하게끔 한 것이다. 울산은 루빅손과 엄원상을 통해 상대 측면수비를 묶고 양 윙백 모두가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게끔 했다. 기존의 비대칭 형태에서 조금 더 대칭적인 성향으로 변화한 것이다. 중앙의 주민규가 평소보다 상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지역에서 많은 볼을 받아내며 연계 역할에 대한 숫자를 유지했다.





[TSG's 픽] 베스트 팀

울산의 이러한 전술 변화 시도는 대성공이었다. 수원FC는 가로 폭 확보에 유리한 5-4-1 수비 대형을 들고 나왔음에도 울산의 윙백 활용에 전혀 대처하지 못했다. 윙어 루빅손과 엄원상은 경기 내내 수원FC의 윙백과 좌우 센터백 사이에 위치해 이들을 묶어냈다. 설영우와 김태환은 상대 윙어의 시야 뒤편을 점하고 끊임없는 오버래핑을 시도해 수원FC의 측면을 괴롭혔다. 울산의 수비 라인은 앞서 서술했듯 최후방에 미드필더를 측면으로 뺀 백3 대형을 형성했기 때문에, 1톱의 수원FC를 상대로 손쉽게 볼을 소유하고 상대 윙어를 중앙으로 끌어들이 수 있었다.

울산의 이러한 성공담은 지표로도 확연히 드러났다. 울산은 이번 시즌 치른 4경기 중 수원FC전에서 가장 높은 기대 득점과 슈팅, 점유율, 기대 위험(xT)을 모두 기록했다. 홍명보 감독 역시 이날 "원하는 경기력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었다. 그런 경기력이 나와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 경기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수원FC전은 앞선 3경기동안 팬들에게 남아 있던 미심쩍은 부분을 한 번에 풀어준 경기였다.

울산은 공격 1/3지점까지 전진했을 때 전방 4명의 1선 라인을 중앙으로 밀집시킨다. 윙백과 미드필더의 위치에 따라 2-4-4나 3-1-6의 대형이라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부터 울산의 주요 목적은 중앙에 밀집된 1선 라인으로 전진 패스를 투입하는 것이 된다. 상대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 지역에 숫자를 확보하고, 패스를 투입해 혼전 상황 속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울산의 주요 노림수다.

울산의 최대 강점은 공격 1/3지점에서 볼을 탈취당했을 때 강하고 정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시즌에도 보여왔던 강점이지만, 이번 시즌 루빅손의 합류로 더욱 강력해졌다. 울산은 뒷선에서 볼을 탈취당한 직후 강도 높은 재압박을 통해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후방 가릴 것 없이 볼 주위 선수들이 공을 소유한 상대 선수를 빠르게 압박하며, 이 사이에 높게 전진해있던 반대 윙백이 후방으로 내려와 수비 밸런스를 유지한다. 이번 시즌에는 전방 4명의 공격 라인이 직접 볼을 되찾아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았다.

울산의 이러한 구도에 있어 핵심이 되는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인 박용우다. 박용우는 전방 공격 라인으로의 전진 패스 능력이 매우 뛰어날뿐더러, 수비 전환 상황에서도 중원을 장악해 공수 밸런스의 중심이 되는 선수다. 박용우는 이번 시즌 울산의 4경기에서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며 홍명보 감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울산의 공격 1/3 지역 형태

최소 실점 울산의 비결, '볼 중심 수비'

2022시즌 최소 실점팀 울산은 이번 시즌 치른 4경기에서도 단 2실점만을 허용하며 현재까지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기대 실점 지표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단순 실점 수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대에게 득점 찬스를 가장 적게 허용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제 홍명보 감독의 울산이 리그에서 가장 견고한 수비 조직력을 갖췄다는 사실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다.

울산은 수비시 공간을 지킬 때와 상대를 압박할 때를 확실히 구분하는 팀이다. 대형은 늘 그랬듯 4-4-2를 기조로 한다. 공격 1/3 지점에서부터 강도 높은 압박을 전개하며, 상황에 따라 종종 미드필드 1/3 지점으로 내려서 수비를 시작하기도 한다. 표본이 적긴 하나 울산은 지난 시즌에 비해 압박 강도를 낮춘 모습을 보였다. (7.8 → 9.0)

울산은 수비시 타이트한 간격을 형성해 강력한 '볼 중심 수비'를 펼친다. 모든 선수들이 지역을 위주로 수비하며 볼 주위 지역에 밀집해 숫자를 확보한다는 뜻이다. 울산은 수비시 지역을 지킬 때와 압박할 때 두 상황 간의 전환이 매우 빠른 팀이다. 4-4-2 대형 아래 지역을 지켜 공간을 봉쇄하다가도, 일정 선수가 스프린트를 끊어 압박을 시작한다면 그 즉시 팀 단위적인 압박이 시도된다. 주변 선수들의 압박에 대한 지원과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이 빠르게 이뤄진

다는 것이 울산 수비의 최대 강점이다. 이에 대한 예시로 영상 속의 강원전을 들 수 있다. 강원 오른쪽 센터백이 볼을 소유한 상황. 울산은 4-4-2로 간격을 좁혀 공간을 지키다가, 강원 중앙으로 볼을 전개하자 2톱과 반대편 미드필더가 나서 빠르게 압박을 가했다. 이 압박을 풀지 못한 강원은 다시 왼쪽 후방 진영에서 볼을 소유하고 말았다. 그리고 다시 강원 중앙으로 볼을 전개할 때, 울산은 아까와 같이 2톱과 반대편 미드필더가 압박을 가하며 강원 볼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데에 성공했다. 울산이 '공간을 지킬 때'와 '압박을 가할 때' 간의 상황을 얼마나 빠르고 명확하게 오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 지난해 오랜 숙원이었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울산은 이번엔 '도전자'가 아닌 '우승자'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했다. 수년간 도전했던 우승 탈환과는 달리 트로피 사수는 울산에게 낮은 목표가 될 수 있다.

다행히도 홍명보는 현재 순항 중이다. 시즌 첫 4경기 전승뿐만 아니라 경기력에 대한 의구심은 수원FC전을 통해 완전히 잠재워버렸다. 우승을 차지한 지난 시즌에도 3월 5연승을 이뤄냈던 기억이 있기에 울산에게는 더욱 의미 있는 성과이다.

하지만 한 시즌을 하나의 여정에 비유하듯 울산은 이제 막 달을 올렸을 뿐이다. 어느 팀에게나 항상 위기는 찾아오기 마련이다. 2023시즌이 끝났을 때, 울산의 3월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울산의 4-4-2 수비 형태



4경기 4골 아사니

이정호 감독이 그린 봉황 위에 찍힌 빛나는 눈동자

이번 시즌 K리그1에서 경기력에 관한 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광주FC이다. 이정호 감독이 K리그2에서부터 확립한 광주식 '공격 축구'를 승격 후에도 구현해내며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광주는 3월 마지막 경기서 인천을 5-0으로 완파하며 달콤한 A매치 휴식기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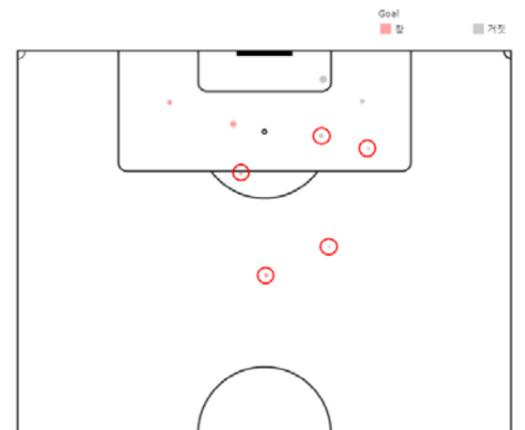
[TSG's 픽] 베스트 플레이어

광주의 돌풍에 있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외국인 선수들이다. 광주는 시즌 초부터 겨울에 영입한 아사니, 티모, 토마스 3명의 외국인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며 덤스를 확보했다. 티모는 지난 시즌 광주의 핵심 수비수였던 박한빈과 아론을 밀어냈으며, 아사니는 올해 광주의 6골 중 4골을 담당해 3월 이달의 선수 TSG선정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되었다

아사니의 4골이 더욱 놀라운 이유 : 단 0.96골(xG)의 기대 득점

4라운드를 기준으로 아사니는 K리그1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한 선수다. 마지막 인천전에서 4골 중 3골을 몰아넣긴 했으나, 오직 10명의 선수만이 2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매 경기 연속적인 득점 페이스를 보인 선수는 없었다. 아사니의 골 폭풍 기록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기대 득점(xG) 지표에 있다. 이번 시즌 아사니는 4골을 넣는 과정에서 단 0.96xG 만의 기대 득점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 0.96골을 넣어야 합리적인 상황 속에서 4골을 넣었다는 뜻이다. 이번 시즌 아사니의 xG 지표는 K리그1 선수들 중 단 10번째에 그친다. 최다 기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2.39xG의 제르소다.

다른 지표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아사니의 효율성을 더욱 짚게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슈팅 횟수는 단 9회다. 전체 9번의 슈팅 중 무려 4개를 득점으로 연결했다. 유효 슈팅은 이중 5회다. 출전 시간 역시 많은 편이 아니다. 광주의 4경기에 모두 나서긴 했으나 단 231분 만을 소화했다. 1R 수원전에서는 66분에 교체 투입되어 팀의 결승골을 뽑아냈다. 아사니는 현재까지 단 한 번의 풀타임 경기도 소화하



이번 시즌 아사니의 슈팅맵. 점 크기가 작을수록 적은 xG값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의 4R 인천전 선제공격 득점 장면.

지 않았다.

아사니의 최대 강점은 정확하고 강한 왼발킥이다. 기본적인 슈팅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황이 따른다면 과감히 슈팅을 시도하곤 한다. 전체 9번의 슈팅 중 3개를 박스 바깥에서 시도했다. 오른쪽 윙어를 주요 포지션으로 출전해서 왼발 패스나 슈팅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아사니의 이러한 슈팅 능력은 수원전(1R) 득점 장면에서 뚜렷이 확인해볼 수 있다. 당시 아사니는 박스 안 왼쪽 진영에서 슈팅 찬스를 맞이했으나, 분명 득점으로 연결하기에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골대와의 각도가 좁은 쪽에서 패스를 받았을 뿐더러 골키퍼 양형모 역시 아사니의 슈팅 각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사니는 골대 상단 부분으로 과감한 슈팅을 시도해 팀의 결승골을 뽑아내는 데에 성공했다. 각도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슈팅을 시



이번 시즌 아사니의 기대 위협 지표

도하는 과감함이 골을 만들어낸 것이다. 아사니의 해당 슈팅 xG값은 단 0.104로 기록됐다.

한편 4R 인천과의 경기에서는 광주가 팀 단위로 아사니의 슈팅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장면이 펼쳐지기도 했다. 바로 전반 9분에 나온 광주의 코너킥 상황이다. 해당 코너킥에서 광주의 주요 포인트로는 3가지를 손꼽을 수 있다. 하나는 볼에서 가까운 아크 쪽에 위치하는 이희균, 둘째는 먼 쪽 아크에 배치된 아사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페널티 스팟 쪽에서 인천의 맨마킹을 받아내고 있는 산드로와 티모다.

광주의 목표는 명확했다. 페널티 아크에 위치한 아사니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우선 가까운 쪽 아크에 위치한 이희균이 순간적으로 움직여 숏 코너킥을 전개한다. 키퍼 두현석과 이희균이 볼을 주고 받는다면, 그 순간에 페널티 스팟에 위치한 산드로와 티모가 상대 수비를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아크 쪽에서 공간을 얻은 아사니는 자유롭게 슈팅을 시도할 수 있다. 광주는 이러한 패턴을 통해 팀의 선제공격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으며, 이 득점은 이날 5-0 승리의 시발점이 됐다.

광주의 가장 '위협'적인 칼날

'기대 위협(xT, Expected Threat)'이란 해당 선수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공격을 전개하였는가를 의미하는 지표다. 팀의 공격 전개에 많은 관여를 할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이번 시즌 아사니는 팀 내에서 가장 높은 기대 위협(xT) 수치를 기록했다. 총 0.386xT를 기록했으며, 이는 2-3위인 이민기, 티모보다 큰 폭으로 높은 수치다.

현재 K리그는 경기 중 넓은 공간을 확보받는 윙백과 중앙 미드필더들이 팀 내에서 가장 높은 xT를 기록하는 흐름





[TSG's 픽] 베스트 플레이어

을 보인다. 오직 강원(김대원), 전북(문선민), 수원FC(이광혁), 광주(아사니)만이 공격수가 팀 내에서 가장 높은 xT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사니는 이들 중 2번째로 높은 팀 내 xT 비중(57.9%)을 차지하고 있는 선수다. 비교 대상을 리그 전체 공격수로 놓고 보더라도 아사니가 팀 내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광주는 공격시 1선에 5명의 선수를 배치하는 팀이다. 중앙과 양 하프스페이스 지역에 각 1명씩 배치해 팀의 전진 패스 옵션을 확보하며, 윙어는 측면으로 넓게 벌려 공간을 확보한다.

아사니는 오른쪽 측면 지역에서 공격 전개에 많은 관여를 보인다. 특히 볼 운반(빨간색)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다. 여유로운 공간 속에서 패스를 받는다면 지체없이 볼을 끌고 전진한다. 아사니는 서울전(2R)과 전북전(3R)에서 광주의 3-2-5에서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됐으나, 지표상 xT는 측면에서 기록할 때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광주의 공격 전술에서 기인한다. 광주는 빌드업 시점과 공격 1/3 지점에서의 형태가 다른 팀이다. 빌드업시에는 선수들이 명확한 포지셔닝을 유지하지만, 공격 지역으로 볼이 넘어간 후에는 개개인에게 높은 자유성을 부여한다. 선수들이 자유롭게 움직여 상대 수비에 혼선을 주고 순간적인 수적 우위를 형성하는 것이 광주의 주요 방식이다.

아사니는 볼이 공격 1/3 지역으로 넘어간 이후 측면으로 빠져 볼을 받는 성향이 짙다. 이곳에서 상대 수비와 1v1 구도를 맞이하기도 하고, 원발을 통해 직접 공격을 주도하기도 한다. 이것이 아사니의 xT맵 시발점이 공격 1/3 오른쪽 측면 지역에 몰려있는 이유다. 최근 인천전(4R)에서는 아예 오른쪽 윙어 자리에 배치되며 경기 내내 측면을 계속 점유했다.

헌신적인 에이스

광주는 공격수들에게 수비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가담을 강조하는 팀이다. 높은 지역에서부터 잘 짜여진 수비를 펼친다는 것이 광주의 특징이자 강점이다. 특히나 이번 시즌에는 백3에서 백4로 전환하면서 윙어의 수비 부담이 더욱 커지기도 했다.

아사니가 광주에 빠르게 녹아들며 활약할 수 있던 특징에는 그의 헌신적인 모습도 한 몫을 했다. 아사니는 수비시에 항상 윙어 자리에 위치한다. 수비시 자기 구역에 대한 책임 의식이 매우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볼이 자기 진영 쪽에 있을 때는 물론이고, 후반 백4 라인 쪽으로 투입되거나 반대 진영에 있을 때에도 자신의 수비 지역에 대한 집중을 놓지 않는다.

아사니의 이러한 수비 가담에 대한 효과는 영상 속 서울전 클립에서 확연히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의 공격이 반대 진영에서 전개된 상황. 이때 아사니는 집중력을 잃지 않고 빠르게 내려와 윙백의 수비를 도왔다. 비록 클리어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범했으나, 만약 아사니의 복귀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더라면 광주의 왼쪽 윙백이 위험 지역에서 2v1 열세에 처하고 말았을 것이다.

지난 시즌 광주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팀 내에 두드러지는 득점력을 지닌 선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K리그2에서 68골을 넣으며 최다 득점 2위 팀에 이름을 올렸으나, 개인 득점 순위 1~3위에는 광주 선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 시즌 광주의 최다 득점 선수는 12골의 헤이스였다.

아사니는 광주의 고민거리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관건은 시즌 내내 얼마나 일관성 있는 폼을 보여줄 것인가에 있다. 지난해부터 이정호 감독이 혼을 담아 그려놓은 봉황에 아사니가 화룡점정이 되어, 2023시즌 광주FC가 날아오를 수 있을까.



아사니의 서울전 수비 가담 장면. 볼이 반대편 지역에서 전개되나,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함께 내려온다.



[TSG's 픽] 베스트 매치



대전의 공격 형태. 주세종이 내려온다면 좌우 센터백이 측면을 넓게 점유하고, 윙백이 안쪽으로 들어왔다.

'6골 폭발'

인천과 대전은 어떤 지략 대결을 펼쳤나

지난 3월 4일에 펼쳐진 하나원큐 K리그1 2023 2라운드 인천과 대전의 일전에서는 무려 6골이 터져 나왔다. 서로의 골망을 여섯 번이나 뒤흔든 끝에 만들어진 최종 스코어는 3-3. 이번 시즌 2-3월달 간 펼쳐진 48경기 중 최다 득점 경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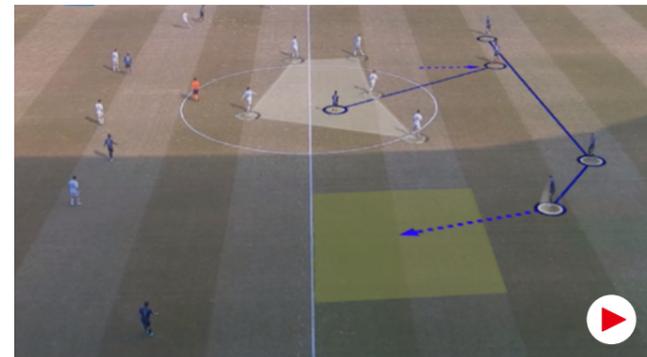
꽤 닮은 두 팀의 빌드업 방식 : 주세종과 신진호의 후방 포지셔닝

이날 인천과 대전은 빌드업시 꽤나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백3 대형을 기반으로 해 좌우 센터백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이다. 대전은 빌드업시 3-5-2를 기반으로 하되 미드필더 주세종을 최후방으로 내려 활용했다. 이 경우 양 센터백이 측면으로 넓게 벌릴 수 있으며, 측면에 위치해있던 윙백은 안쪽으로 들어와 최전방 숫자 싸움을 돕거나 빈 공간을 점유했다. 주세종의 포지션 변화를 필두로 팀 전반적인 포지션 체인지가 발생한 것이다. 대전의 이러한 빌드업 형태의 주요 목적은 주세종에게 자

유를 주는 것이다. 인천이 3톱으로 수비를 시도하기 때문에 주세종이 내려와 수비 라인에 4명의 선수를 확보한다면 4v3 수적 우위를 이뤄내는 것이 가능하다. 대전은 지난 K리그2 시절부터 주세종을 활용한 이러한 빌드업 형태를 계속 활용해왔다. 주세종은 상대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와 자유롭게 볼을 소유하고 대전의 빌드업을 주도했다. 정확한 전진 패스와 빠른 반대 전환을 해내는 것이 그의 주요 임무다. 주세종은 이날 대전의 '후방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착실히 수행하며 다른 선수들이 빌드업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게끔 했다. 한편 대전의 양 센터백들은 주세종이 내려올 때 측면으로 벌려 공간을 점유했다. 인천이 수비시 5-2-3 대형을 형성



대전은 빌드업시 주세종을 최후방으로 내리고(하양 표기), 센터백을 벌려 인천의 측면 지역을 공략했다. (초록 표기)



인천은 델브리지를 공격적으로 활용하여 5-2-3/5-3-2 수비 대형을 들고 나온 대전의 외곽 지역을 공략했다.

했기 때문에, 대전의 센터백이 측면으로 나설 경우 인천 잉어의 바깥쪽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가능했다. 대전은 주로 공격 능력이 뛰어난 김민덕을 통해 이 지역을 공략했다. 전방에는 기본적으로 '유강현-티아고'의 2톱이 위치하나, 상황에 따라 미드필더와 윙백이 가담해 숫자 싸움을 더했다. 종종 미드필더 이진현과 김영욱이 전진해 인천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드 라인 사이 지역을 점하기도 했으며, 윙백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하프 스페이스를 노릴 수도 있었다. 대전의 센터백이 넓게 벌려섰기 때문에 가능했던 움직임이다. 대전은 대개 왼쪽의 서영재를 안쪽으로 좁히며 전방 수 싸움을 시도했다.

인천은 이날 중앙 미드필더인 신진호와 이명주를 통해 최후방의 주세종을 압박하려 했다. 인천의 잉어가 주세종의 위치에 관여하다간 측면으로 벌린 대전의 센터백들에게 넓은 공간을 허용하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신진호와 이명주의 주세종 압박은 그리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기본적으로 주세종의 전진 패스 능력이 매우 뛰어났을 뿐더러, 뒷선에서도 대전의 윙백과 미드필더가 유동적으로 움직여 신진호와 이명주의 배후 공간을 공략했기 때문이다.

한편 인천은 빌드업시 3-4-3 대형을 기반으로 했다. 공격 대형 자체는 대전과 꽤나 유사한 편이다. 빌드업시 왼쪽 센터백인 델브리지를 공격적으로 활용했으며, 델브리지가 전진할 경우 그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 미드필더 신진호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다. 양 윙백은 1선에 깊게 위치해있기 보단 미드필드 1/3 지역에 위치해 인천의 측면 연결 고리가 되어주려 했다.

이날 인천과 대전의 차이는 유사한 공격 형태를 형성하더라도 그에 대한 '목적'에 있었다. 대전은 주세종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 미드필더를 내린 반면, 인천은 왼쪽 센터백인 델브리지를 공격적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뒀다. 신진호의 후방 움직임이 공간을 얻기 위함이 아닌 주로 델브리지의 공격 가담을 돕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날 인천은 델브리지를 공격적으로 활용하여 5-3-2/5-2-3 수비 대형을 들고 나온 대전의 외곽 지역을 공략했다.

인천이 델브리지를 통해 1차적으로 벌어진 대전의 측면 지역으로 볼을 투입한다면 크게 2가지 시나리오로 공격이 전개됐다. 하나는 중앙 공격수 에르난데스가 내려와 순간적으로 벌어진 대전의 중앙 수비 진영을 공략하는 것이다. 대전의 경우 측면의 델브리지를 막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틈에, 공격수 에르난데스가 내려와 공간을 얻는 것이 가능했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인천의 중앙 미드필더와 윙백이 델브리지 쪽으로 빠르게 지원을 나서 볼 주위 지역에서 숫자



[TSG's 픽] 베스트 매치

싸움을 시도하는 것이다. 인천은 이곳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시도하거나 winger 제르소의 침투를 겨냥한 공격을 전개했다. 중앙의 에르난데스가 연계에 대한 지분을 갖고 측면의 제르소와 김보섭이 적극적인 침투를 시도했다. 신진호와 이명주로 이뤄진 미드필더 라인을 보유한 인천은 중원에서 빠르고 정확한 킱을 전개할 수 있었다.

승부의 키워드, '스피드'

이날 양 팀 선발 라인업은 공격 진영의 스피드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3톱 자리에 발 빠른 제르소-에르난데스-김보섭을 모두 배치한 인천은 역습 상황에서 강점을 발휘했다. 인천은 볼 탈취 후 대전의 1차 압박을 견뎌낼 경우, 상대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에르난데스와 제르소를 즉시 겨냥하는 것이 가능했다. 제르소는 인천이 역습을 전개하려는 타이밍에 미리 뒷선으로 이동해 역습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으며, 김보섭은 제르소에 비해 수비 가담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핵심은 에르난데스다. 빠른 스피드를 지닌 에르난데스는 정확한 키 패스도 전개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날 대전은 인천의 역습 전개에서 에르난데스 수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비 라인을 올려 중앙 수비수 조유민이 맞붙자니 에르난데스가 측면으로 빠져들어가 역습의 필두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다고 대전이 라인을 내려 인천의 스피드에 대비한다면, 공간을 얻은 에르난데스가 역습의 기점이 되어 침투를 시도하는 제르소에게 키 패스를 건넸다. 이날 인천은 에르난데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패턴의 역습을 시도하며 경기 내내 대전의 골문을 위협했다

한편, 대전은 1선에서 인천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소개한 빌드업 패턴을 통해 위협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하는데까지는 성공적이었으나, 이날 2톱을 구성한 티아고-유강현 라인이 속도에 강점이 있는 유형의 선수들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천의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 지역으로 볼을 투입하더라도 이곳에서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티아고와 유강현은 경기 내내 인천 수비 라인과 스피드 경쟁에 밀려 열세를 보였다.

대전은 1선 공격수들을 통해 높이 면에서 우위를 점해야 했다. 티아고와 유강현은 각각 190cm, 186cm의 신장을 지닌 타깃형 공격수들이기 때문이다. 인천의 중앙 수비 김동민(180cm)의 신장을 고려하자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날 대전은 전방 2톱이 공중볼 경쟁을 할 만한 상황 자체를 많이 만들지 못했으며, 이는 곧 대전의 강점이 열어지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에르난데스가 중앙 수비 조유민과 맞붙는다면, 측면으로 빠져 들어가 역습의 필두가 됐다.



이날 대전은 상대 진영으로 전진 패스를 투입하는데까진 성공적이었으나, 스피드 면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전략적 교체가 만들어낸 양 팀의 네 골

후반 59분, 대전의 이민성 감독이 경기 첫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강현을 빼고 김인균을, 김영욱을 빼고 신상은을 투입한 것이다. 발 빠른 김인균과 신상은을 통해 전방에 '스피드'를 보강하려는 의도였다. 지공에서 속공을 노리는 방향으로 경기의 양상을 바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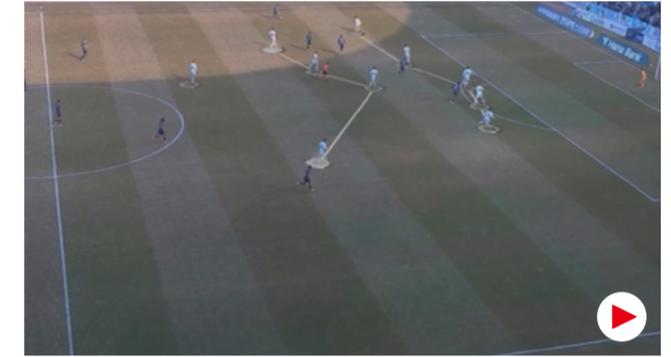
이 시점에서 대전은 3-5-2에서 3-4-3으로 전환했다. 김인균과 티아고, 신상은이 3톱을 이뤘고, 중원에는 이진현과 주세종이 위치했다. 대전은 이 교체 이후 내려앉은 양상의 경기를 보였다. 발 빠른 김인균과 신상은이 투입되어 인천이 라인을 끌어 올린다면 그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민성 감독의 용병술은 완벽히 적중했다. 후반 65분, 대전은 신상은과 김인균의 스피드를 활용한 역습을 통해 공격 1/3 지점까지 빠르게 볼을 전개했다. 이후 인천의 수비가 완전히 밀집되기 전에 빠른 공격을 전개하여 김인균의 역전골을 뽑아내는 데에 성공했다. 경기 내내 위협적인 역습을 전개한 쪽은 인천이었으나, 막상 이를 통해 역전골을 뽑아낸 팀은 대전이었다.

시간을 3분 전으로 돌려 이러한 대전의 변화에 대응한 인천의 교체 역시 인상적이었다. 대전이 내려앉은 양상을 보이자 인천의 조성한 감독은 왕백 정동윤을 빼고 공격수 음포쿠를 투입했다. 같은 3-4-3 포메이션을 활용하되 제르소-에르난데스-음포쿠가 3톱을, 기존의 오른쪽 공격수였던 김보섭이 왕백 자리로 이동한 형태였다. 후반 75분 제르소가 빠지고 송시우가 들어온 시점에서는 '음포쿠-에르난데스-송시우'의 형태로 3톱이 이뤄졌다.

이러한 교체의 본래 의도는 내려앉은 대전을 상대로 보다 강력한 공격을 전개하기 위함이었다. 왕백 자리에 들어선 김보섭은 기존의 정동윤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공격 시 1선에 깊게 위치해 상대 수비를 놀려줬으며, winger 음포쿠에게 공간을 열어줬다. 음포쿠는 전방에서 힘 싸움을 돕거나 수 싸움에 가담해 인천의 공격을 보조했다.

조성한 감독의 송시우-음포쿠 투입에 대한 결심은 인천의 2, 3번째 득점 장면에서 드러났다. 송시우는 인천의 2번째 득점 과정에서 침투해 들어가는 에르난데스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줬으며, 음포쿠는 인천 3번째 골의 주인공이 됐다. '골 축제'가 터진 인천과 대전 간의 일전은 이번 시즌 양 팀의 전술적 색채를 뚜렷히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다. 대전은 공격시 2톱 1선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주세종을 활용한 빌드업 패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대전이 K리그2 시절부터 시도해왔던 전술이 K리그1 무대에서도 힘을 발휘할



대전은 신상은과 김인균을 투입한 이후, 이 둘을 winger 자리에 배치한 5-4-1 대형으로 수비했다.



인천은 김보섭을 winger 자리에 배치해 매우 공격적인 형태로 기용했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다.

한편, 인천은 이날 경기에서 3톱의 파괴력을 입증했다. 선발로 가동한 '제르소-에르난데스-김보섭' 라인은 스피드와 연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이들은 경기 내내 대전의 수비 라인에게 딜레마를 안기며 위협적인 역습을 전개했다.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음포쿠와 송시우는 대전의 수비 라인을 상대로 2골을 뽑아냈다. 음포쿠는 유연한 오버헤드킱을 통해 인천 재역전골의 주인공이 됐으며, 송시우는 여전히 경기 종반에 위협적인 선수라는 점을 다시 입증했다.

인천과 대전은 최근 3년간 구단의 이미지가 가장 많이 변화된 팀이다. 인천은 더 이상 '잔류왕'이 아닌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팀이 되었고, 대전은 이제 우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 구단이 되었다.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은 하위권 구단 간의 눈물겨운 승부가 아닌, 수준급 구단 간의 치열한 맞대결이 되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타협? 2023년 '익수볼'의 변화

2023 K리그 TSG기술위원
김남표



안익수 감독의 2022년은 순탄치 못했다. 2021년 성과를 내었던 특유의 전술을 시즌 초반부터 구현하였으나 좀처럼 결과를 내지 못했다. 최종 성적은 9위. 구단 창단 이래 11위를 기록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성적표를 받았다. 이른바 '익수볼'이라 불리는 안익수 감독의 전술적 방향성이 확고해 보였으나, 안익수 감독 개인적으로는 '이상과 현실', 즉 '내용과 결과'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거듭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술한 고민과 의구심 속에 지난 시즌을 보낸 FC서울이 올해는 달라졌다. 시즌 첫 4경기에서 3승 1패를 기록하며 현재 리그 2위 자리에 올라섰다. 3월 무패를 기록한 지난 2019년 이후 가장 기분 좋은 출발이다. 하지만 이를 보고 '드디어 그 익수볼이 통하는가.'라고 한다면, 틀린 분석이다. 서울은 지난 시즌과는 확연히 다른 경기 운영을 통해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BEFORE : 안익수 감독은 어떤 전술을 활용했었나?

서울의 기본 포메이션은 4-1-4-1이다. 수비시에는 허리 라인의 기성용이 중앙으로 내려온 5-4-1 대형을 형성한다. 백3로 전환하지만 최후방 라인을 높게 잡아 강하고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뒷선에서부터 수비를 시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가 미드필드 1/3 지점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에도 끊임없는 압박을 가한다. 지난 시즌 서울은 K리그에서 2번째로 높은 압박 강도(PPDA)를 기록했다. (8.2)

한편 공격시에는 기성용이 뒤에서 받쳐주고 양 윙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보인다. K리그에 신선함을 불러 일으켰던 이른바 '인버티드 윙백' 전술이다. 이 경우 서울이 미드필드 진영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면서 볼 소유를 기반으로 한 빌드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이때 안쪽으로 좁힌 윙백은 서울의 볼 점유에 관여하지 않는다. 상대 측면 선수를 묶어 서울의 윙어에게 공간을 열어줄 수도 있고, 또는 서울의 미드필더가 뒷선에 위치하게 하여 전방으로의 패스 옵션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 현대 축구에서 이러한 '인버티드 윙백' 전술을 활용하는 팀들은 지속적인 볼 소유를 통해 경기를 지배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형성할 수 있을뿐더러, 윙백이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대 역습을 막아내는 데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은 지난 시즌 경기장 위에서 이러한 전술을 구현하는 데에 여러 문제점을 보였다. 수비부터 얘기해보자. 지속적인 압박을 강조하는 전술은 한 시즌을 꼭 치르기 위해 반드시 체력적 준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은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체력과 집중력에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수비 진영에 많은 공간을 노출하는 문제를 보였다. 좋은 경기를 하고도 수비 허점을 내줘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시즌 서울은 6월까지지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 수비 조직력을 선보였다. 단일 경기에서 단 한 번도 2실점



2022시즌 서울의 빌드업 장면. 윙백이 안으로 좁혀 패스 옵션을 제공해주고, 미드필더들이 뒷선에 위치할 수 있게끔 한다.



서울의 지난 시즌 대구전(10.01) 실점 장면. 제카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해 실점하고 말았다.

이상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시즌 첫 18경기에서 19실점만을 허용했다. 지난 시즌 서울은 7월 여름에 돌입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높은 수비 라인도 서울의 고민거리였다. 높은 수비 라인이 잘 이뤄지기 위해서라면 이 3가지 요건이 잘 갖춰져야 한다. ▲뛰어난 전술이해 능력을 갖춘 선수 - 수비 라인의 리더 ▲돌파를 당하더라도 쫓아갈 수 있는 스피드 ▲넓은 공간을 커버해 최후의 수비수 역할을 겸해줄 수 있는 GK. 지난 시즌 서울은 오스마르, 기성용 등의 베테랑은 있었으나, 높은 수비 라인을 커버하기 위한 기동력 좋은 선수들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의 공격 역시 아쉬운 점이 있었다. 전반적인 빌드업 과정은 좋았으나 공격 1/3 지점에서의 마무리 작업이 미숙했다. 박스 안으로의 침투가 활발하지 않았으며, 공격 지역에서의 적극성도 변수를 만들어내기에 부족했다. 그러다보니 측면에서 볼을 돌리다 다시 뒤로 공격을 물러서는 상황이 많았다. 서울이 많은 패스 횟수(625회, 1위)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 숫자가 저조했던 이유다.

**AFTER :
2023시즌 FC서울의 변화**

이러한 서울이 이번 시즌에는 확연한 변화를 주며 성적을 내기 시작했다. 우선, 빌드업 작업 자체가 상당히 간결해졌다. 선수들이 각자 위치를 지키며 개인 능력을 활용하는 플레이를 시도하는 쪽으로 변화했다. 이전 인버티드 윙백과 같은 전술적 움직임도 잘 이뤄지지 않는 편이다. 가령 황의조의 예로 들어보자. 황의조는 이번 시즌 일류첸코와 함께 4-4-2의 2톱 자리에 배치되어 2선 쪽에서의 연계 플레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역할을 맡았다. 뛰어난 피지컬을 통해 전방에서 볼을 소유하고 양 윙백의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빠른 공수전환을 바탕으로 선 굵은 축구를 전개하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이번 시즌 서울은 낮은 지점에서 볼을 탈취하고 빠른 역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대개 2톱 일류첸코와 황의조가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고, 양 윙어가 빠르게 올라와 역습을 전개하는 패턴이다. 이번



이번 시즌 서울의 역습 패턴.
주로 2톱 일류첸코, 황의조가 볼을 지켜주고 양 윙어가 빠르게 쇄도한다.



서울의 3R 올산전 수비 형태.
윙어 임상협을 내려 김태환의 오버래핑에 대응했다.

시즌 서울은 '시퀀스당 패스 횟수', '시퀀스당 소요 시간', '시퀀스의 다이렉트 스피드'의 수치에서 모두 전년도보다 간결해진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수비 방법 역시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변화했다. 이번 시즌 서울은 4-4-2를 기반으로 공간을 지키는데 주력하는 형태를 보인다. 상황에 따라 윙어를 아예 수비 라인으로 내려 상대의 측면 공격에 대응하기도 한다. 가령 3R 올산전의 경우, 서울은 윙백 김태환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에 대응하기 위해 윙어 임상협을 내린 5-2-3 수비 대형을 경기 중 혼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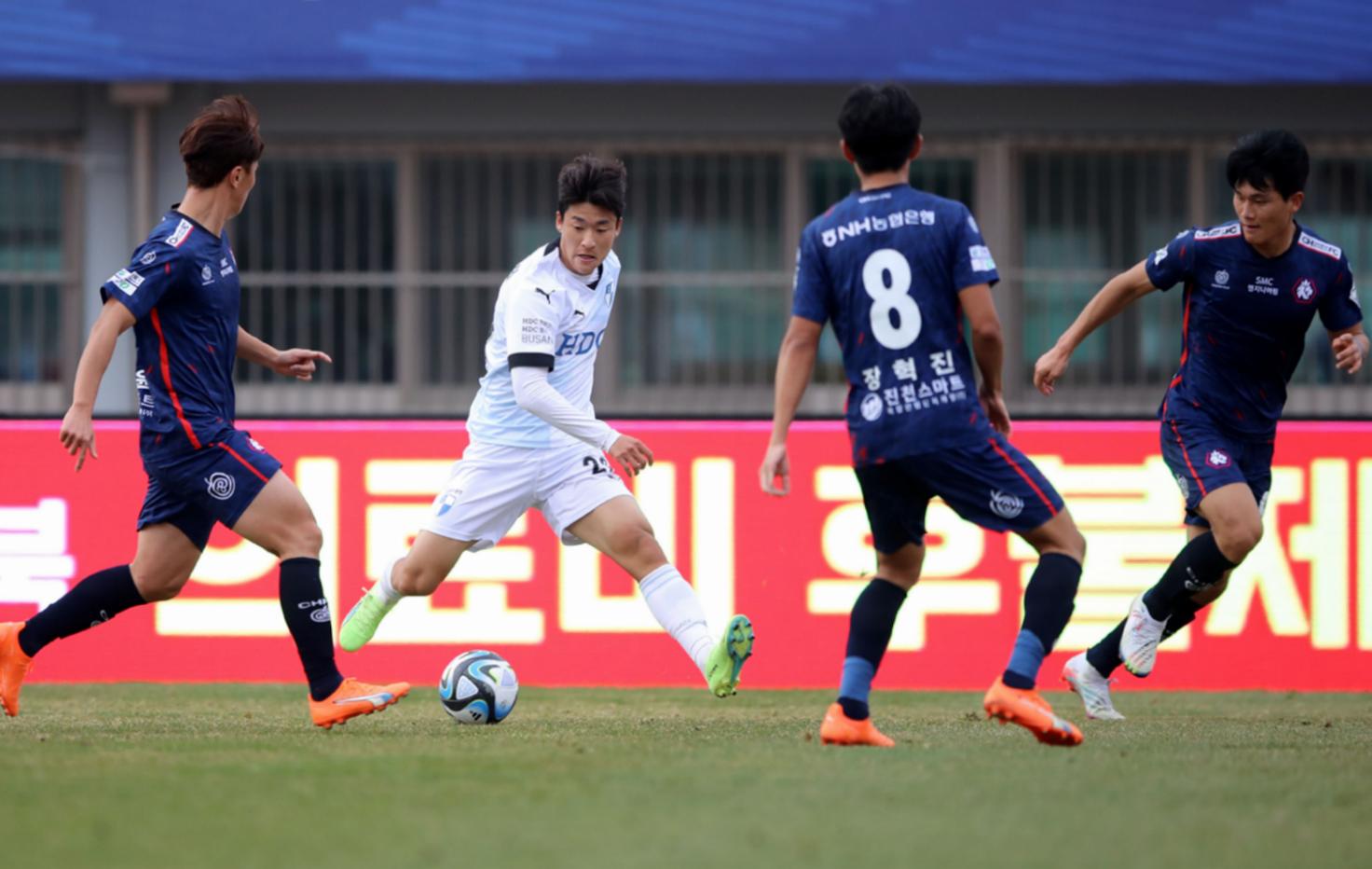
또한 작년과 달리 전방에서 무리한 압박을 잘 시도하지도 않는다. 선수들이 앞으로 무리하게 덤비는 수비보다는 상황 판단을 통해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전반적인 조직력과 수비수-미드필더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더욱 좋아졌다. 서울의 이러한 변화는 압박 강도 수치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지난 시즌 서울은 K리그에서 2번째로 높은 압박 강도(PPDA)를 기록했으나, (8.2) 이번 시즌은 단 10위에 그친다. (10.62) 올해 서울보다 낮은 압박 강도를 보이는 구단은 수원FC와 대구 뿐이다.

축구계에는 '단순한 것이 최고다.'라는 격언이 있다. 서울의 전술적 색채가 작년에 비해 단조롭고 열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색채가 열여졌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전술적으로 유연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강한 색채를 유지하는 것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프로 무대에서 더 현명한 방식이 되기도 한다. 올해는 FC서울의 약진을 기대해 본다.

김남표 위원 약력

- 1995~1999 대우로얄즈 코치
- 2000~2004 부산아이파크 코치
- 2005~2022 KFA 전임강사
- 2014~2022 AFC 1급 피트니스 주강사
- 2017~2022 AFC 프로 라이선스 주강사
- 2019~2020 KFA기술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2022~ 한국프로축구연맹 TSG기술위원





K리그 신입생 수비 조직력 중간 점검

— 충북청주FC & 천안시티FC

올 시즌 K리그2에도 신입생들이 등장했다. '충북청주FC'와 '천안시티FC'가 바로 그 새 얼굴들이다. 베일에 싸인 신생팀이기에 발생하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시즌 초반 상대팀보다 사전 분석의 우위를 점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신생팀이란 호칭은 그들을 상대적 약팀의 스탠스에 놓이게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상대적 약팀들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수비 조직'이다. 무실점 경기는 무엇보다 승점을 1점이라도 확보할 가능성을 준다. 충북청주와 천안은 K리그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만한 수비 조직력을 선보이고 있을까. 시즌 개막 후 한 달이 흐른 지금, 2023년 월간 TSG의 첫번째 TSG 토픽에서는 두 팀의 수비 조직력에 대한 중간 점검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경력같은 신입' 충북청주, 강한 압박의 색채를 내비치다.

현 순위 7위에 위치한 충북청주부터 얘기해보자. 4경기 1승 2무 1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만족스러운 시즌 초입을 보냈다. 상위권에 위치한 경남과 부산을 상대로 승점을 따냈다는 것 역시 매우 고무적이다. 비록 '4경기 7실점'이라는 결과는 개선할 필요가 있겠으나, 지난 4경기를 통해 충북청주의 저력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다.

충북청주는 수비시 압박의 색채가 매우 짙은 팀이다. 수비대형은 백3를 기조로 한다. 공격 1/3 지점에서부터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해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통제한다. 세컨볼이나 역습에 용이하도록 폭을 좁게 하여 공간 내 숫자를 확보하는 것이 충북청주의 특징이다. 선수 구성이나 상대에 따라 경기 중 5-4-1과 5-3-2 대형을 유동적으로 활용한다. 이번 시즌에는 5-4-1을 활용할 때가 많았다.

충북청주는 전방 압박시 수비 라인과 뒷선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최후방 수비 라인에서는 상대 공격수들을 1v1로 대인 수비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에 대한 예시로 지난 부산전(3R)과 경남전(4R)을 들 수 있다. 경남과 부산은 모두 후방 빌드업시 4-2-2-2를 형성하는 팀이나 그 형태가 조금 다르다. 경남은 4-4-2의 양 측면 미드필더를 중앙으로 좁히고 부산은 4-2-3-1의 공격형 미드필더(정원진)와 오른쪽 윙어(페신)가 2선을 이루는 형태다. 충북청주는 경남전에서 양 윙백을 중앙으로 좁혀 상대 2명의 공격형 미드필더에 대응한 반면, 부산전에서는 좌우 센터백이 직접 나와 라인 사이 지역의 선수를 잡아냈다. 상대 대형이



같더라도 이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 유동적인 대인마크 방식을 선보인 것이다.

한편, 5명으로 이뤄진 전방 진영에서는 지역 수비의 형태를 보인다. 좁은 간격을 통해 상대 볼 주위 지역에 숫자를 확보하고 패스를 손쉽게 전개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상대 어느 선수가 빌드업을 전개하느냐에 따라 원어와 중앙 미드필더 모두가 압박을 나설 수 있다. 정해진 역할은 없다. 상대 선수에 따라 항상 유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1선 수비 형태에 후방에서의 대인 수비까지 견고하게 이뤄진다면 비로소 강력한 전방 압박을 가할 수 있다.

물론 신생팀인 만큼 수비 문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충북청주는 수비 진영 속으로 볼이 투입됐을 때 백5 라인이 상대 선수를 확실시 눌러주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 후방 쪽 경합 상황에서 밀리는 것이다. 전방에서 상대를 압박한다면 부정확한 패스가 시도되어 백5 라인 쪽에서 경합을 피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대개 수비 라인이 빠른 반응을 보이지 못해 상대의 공격을 허용해버리고 만다. 이번 시즌 충북청주가 K리그2에서 2번째로 많은 슈팅을 허용하게 된 배경이다. 충북청주는 지난 4경기에서 평균 15.2개의 슈팅을 허용했다.

압박에 대한 일관성도 충북청주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충북청주의 압박 퀄리티는 경기 중반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후반전에는 미드필드 1/3 지점으로 내려서 수비 진영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시즌 충북청주에는 유독 전/후반전이 끝나기 직전에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남전에는 전반전 종료 직전에 2골을 먹혀 2-2 무승부를 거뒀으며, 부산전에서는 경기 막판에 실점을 허용해 승점 3점을 놓치고 말았다. 김천전 역시 청주가 추가 실점을 내준 경기 중 하나다.

아직은 개선이 필요한 천안

한편 천안은 충북청주에 비해 상황이 좋지 못하다. 지금까지 모든 경기에서 패배했으며, 실점 수도 가장 많다. 현재 K리그에서 승점을 따지 못한 유일한 구단이다. 큰 포부를 품고 입성했지만, 프로리그의 벽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여실히 체감하고 있다.

천안은 충북청주와 달리 미드필더 라인에서 색채가 뚜렷한 팀이다. 주요 수비 대형은 4-1-4-1이다. 공격시엔 4-2-3-1을 활용하면서도 수비시에는 4-1-4-1으로 전환해 허리 라인에 많은 숫자를 두는 것이 특징이다. 천안은 이번 시즌 4경기에서 같은 수비 대형을 활용하며 일관된 전술을 보여왔다.



충북청주의 전방 압박 형태. 수비 라인과 윗선 간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다.



충북청주의 수비 문제. 수비 라인 쪽에서 종종 상대 선수를 누르지 못한다.



천안의 이번 시즌 수비 형태.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역할 분담이 매우 명확하다.



안의 수비 문제.
미드필더가 선수를 압박하는 데 치중하면서 중원 지역을 내줄 때가 많다.

천안은 수비시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역할 분담을 뚜렷이 하는 팀이다. 좌우 미드필더 선수들은 상대 후방 자원을 압박하는 데에 주력한다. 기본적으로는 상대 3선 미드필더를 수비하지만, 상대가 빌드업 과정에서 수비수를 활용한다면 활동 반경을 넓혀 센터백까지 압박하기도 한다. 천안은 수비 전술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좌우 미드필더 선수들의 활동량을 폭 넓게 활용하는 팀이다.

한편 양 윙어는 측면 지역에 집중하며 상대 윙백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인다. 상대 윙백이 공격을 위해 전진한다면 천안의 윙어가 미리 내려가 맨투맨을 선점한다. 천안은 윙어의 수비 라인 가담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는 팀이다. 기존 윙백은 자신의 지역을 지키며 센터백과의 간격 유지를 손쉽게 이뤄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보이는 천안이 수비 과정에서 의도하는 목적은 명확하다. 중앙 미드필더를 통해 상대 볼 출기를 압박하면서도, 최후방에 높은 밀도의 수비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다. 천안은 미드필더 라인 선수들이 '대인 수비'의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천안은 이러한 미드필더의 대인 수비 성향에서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경기 중 종종 미드필더가 상대 선수를 수비하기 위해 앞으로 쳐져 라인 사이 지역을 내주기 때문이다. 이는 대개 미드필더들이 '지역'보다 '선수'를 집중적으로 수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부담이기도 하다. 이 경우 수비 라인에서 라인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도하거나, 볼 주위 지역에서 상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해 라인 사이 지역으로 볼이 투입되지 못하게끔 해야 했다.

영상 속의 충남아산전 실점 영상을 다시 돌아보자. 어시스트가 된 충남아산의 마지막 패스가 시도되는 순간, 천안의 두 중앙 미드필더는 마땅한 수비 영향력을 펼치지 못했다. 압박을 나선 윤용호는 상대 패서를 강하게 압박하지 못했으며, 중앙 라인의 이민수는 주변 미드필더에게 쳐져 라인 사이 지역의 강민규를 놓치고 말았다. 이후 충남아산은 라인 사이 지역에 위치한 강민규에게 전진 패스를 넣어 첫번째 '천안-아산 дер비'를 승리로 장식하는 데 성공했다.

천안의 골키퍼 퍼포먼스도 또 다른 고민거리 중 하나다. 이번 시즌 천안은 K리그 내에서 기대 실점 대비 실점 수가 가장 높은 팀이다. 단 6.14 만의 기대 실점을 허용했으나 11골을 실점했다. K리그1까지 살펴봐도 천안보다 두 지표 간의 격차가 큰 팀은 존재하지 않는다. 골문 안으로 슈팅(유효 슈팅) 이뤄진 후에 기댓값이 측정되는 xGOT 지표도 썩 좋지 않다. 월간 TSG에서는 'xGOT-실 실점수'의 수치를 '선방 지수'라고 정의한다. 천안은 K리그2 내에서 4번째로 낮은 선방 지수를 기록했다. 이번 시즌 천안은 3R 부천전을 기점으로 선발 골키퍼를 김호준에서 김민준으로 교체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선보이려 했다.

스타의 영입이나 막대한 자금력 등 화려한 등장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팀의 등장은 그 자체로 리그에 의미가 있다. 기존 팀들과의 상성에 따라 역할관계가 성립되고, 더 나아가 리그 판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지난 시즌 김포FC는 창단 첫 해부터 리그 8위를 기록해 창단팀을 향한 우려와 인식에 대해 시사점을 던졌다. 신입생 충북청주와 천안이 점차 K리그에 적응하며 자신들의 캐릭터를 확립해 갈 모습은 올 시즌 K리그2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이다.



